제1,2,3 RUTC 응답 : 예수님의 제자 훈련(막3:13-15) 3/15/2020

온 세상이 바이러스 공포로 얼어 붙었다. “인간이 이렇게 연약할 수 있구나” 새삼 확인이 된다. 온 세상에 고통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적어도 말씀 속에서 세가지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잡아야 한다.

이런 재난과 고통은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진 일들이다. 특히 질병으로 인해 인류가 고통을 당하는 일도 예언되었고, 실제 계속 되어 왔다(1447년에 있었던 페스트, 1차대전 이후 바로 따라 온 1918년에 시작된 스페인독감 등)

첫째는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당연한 결과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구원의 때를 기다린다고 했다(롬8:21-22).

둘째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리는 필연적인 시간표이다. 사단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핍박과 재난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했다(계12:12).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도 따라오면서 일어나는 재앙들이다.그러나 주의 사람은 거기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고, 주님을 맞을 것이라는 것이 계시록의 결론이다(계22:20-21).

셋째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적인 것이 있다(마24:14). 그 속에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 찾아내서 치유하고, 살리고, 다시 이 복음을 전할 제자로 키워내라는 것이다. 그것이 지난 네 주간의 메시지이다.

1. 두려워하지 말고, 평소의 전문인들이 말하는 대로 건강 관리를 잘 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굳게 잡으라.

1)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령이 붙잡으실 것이다.

 계시록에는 모든 재앙과 저주의 세력이 결코 성령의 인친 자들을 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144,000명, 신구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속에 있다고 했다(계7:4, 9:4, 14:1-3).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다.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라고 했다(엡1:13).

 우리가 정말로 그 분을 바라본다면 모든 사단의 올무와 악한 전염병에서도 건지실 것이라고 했다(시91:3, 11)

2)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그 성령이 나를 지키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도록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이다.

 마25장의 열 처녀의 비유가 그것이다. 마24장에서 말세의 모든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주신 비유다.

 핵심은 무엇인가? 기름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는 것이다(13절). 실제로 계19장에 이 모든 재난과 환란과 고통 속에서 승리한 성도들이 흰 옷을 입고 어린 양이신 주님과 혼인 잔치를 하는 모습이 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평소의 자기 관리도 되고, 무엇을 해야 하고 말아야 할지 인도도 받고, 무엇보다도 모든 것을 이길 믿음과 힘을 얻게 된다.

3)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고, 축복할 전도자가 맞다면 주께서 붙잡으신다고 했다.

 막16:15-20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전도자에게 주신 언약이다.

 계12:17에 사단이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 사람들을 해하려고 섰지만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못 이긴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무엇이겠는가? 복음 전하다가 당한 핍박, 어려움을 의미한다(갈6:17)

 정말 복음 전하다가 받은 손해, 핍박, 억울한 일이 있는가? 지금 이 어려울 때에 깨어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할 것이 이것이다. 혹시 병이 와도 상관없다. 승리할 것이다. 참 전도자, 참 제자로 준비되기를 축복한다.

2. 본문은 주님이 이렇게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고 승리해야 할 제자들에게 무엇을 훈련시키셨는가를 말씀하신다.

 우리는 이 시대 택함 받은 자들이다. 세가지 언약을 붙잡고, 내가 체험하고 누리는 축복이 되기를 바란다.

1) 제자가 누려야 할 첫 번째 축복은 그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14절).

① 그리스도의 권세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저주, 사단의 저주, 지옥 저주를 해결하시고 함께 하신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고 하신 것이다(요19:30). 문제, 고통, 재난은 계속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매순간 누리면서 이 믿음을 회복하라는 것이다.

② 그 분이 부활하시면서 그 분의 생명과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 하신 것이다.

 내가 다른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이제는 하늘의 DNA를 가진 자로 사는 것이다(사6:13의 “거룩한 씨”)

③ 그 분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으로 함께 하신 것이다. 성령으로 인을 치셨다는 말은 함께 하신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나를 위로하고, 보호하고, 가르치시고, 인도하는 “보혜사”라고 했다(요14:16-18).

 렘넌트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부 이 축복을 누린 것이다(시23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2) 제자가 누려야 할 두 번째 축복은 전도의 축복이다(14절하).

 우리가 정말 모든 문제의 해답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누릴 때에 당연히 따라오는 축복이다.

① 정말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전도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증거가 되게 해야 한다(행1:8)

 나의 아픔도 고통도 다 증거가 되게 해야 한다. 그 증거를 가지고, 나 같은 사람에게 간증하며 살리는 것이다. 나의 학업, 직장, 사업을 사람 살리는 전도와 선교 중심으로 해보라. 모든 것을 더할 것이라고 했다(마6:33)

② 그 중심을 가지고 살면 정확히 준비된 사람을 만나는 축복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성령이 만나게 하시는 것이다(행8:26, 29, 39).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여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행16:14)

 이렇게 해서 만나는 사람들의 리스트를 만들어 기도부터 시작해보라는 것이다(개인 다락방, 지교회에서 할 일)

③ 언제 어떻게 만나게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정확한 길을 말해주고, 답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구원의 길”을 가지고 계속 혼자서 해보라.

 특히 전도 자료를 가지고 다니는 것을 필수이다. 쪽지에 적힌 성경 구절 하나로도 인생이 바뀌기도 한다.

3) 제자가 누려야 할 세 번째 축복은 영적 승리의 축복이다(15절).

① 제자는 누구보다도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볼 줄 알아야 한다(요일3:8).

 모든 인생의 고통과 실패를 가져다주는 도적이라고 했다(요10:10). 그래서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도 이해 할 수 없는 문제를 당하는 것이다. 물론 타락의 길도 가게 한다(엡2:2-3). 정사와 권세를 쥐고 세상을 고통을 몰아 넣기도 하고(엡6:12), 강대국을 움직여 각종의 문제와 고통을 만들어내기도 한다(계18:1-3)

② 그들 중에 누구라도 그리스도께로 나오기만 하면 되는데, 그 그리스도를 못 깨닫게 한다(고후4:4)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 강팍한 마음을 주기도 한다. 분주하고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한다.

 전도자들이 누군가를 살리고 도우려고 할 때 이 흑암이 무너지는 권세를 누려야 하는 절대 이유다(눅10:19)

③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전도자를 핍박하고, 훼방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다.

 제자들이 그 마귀에게 속아 배신도 하고, 도망도 간 것이다(요13:27, 눅22:31-32)

 그래서 전도자 자신부터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 속에서 힘을 얻고, 싸워 승리해야 한다는 것이다(엡6:13)

결론-우리는 마지막 때에 남은 자요, 제자들이다.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릴 만큼 훈련된 제자로 서기를 축복한다.